

# “양배추 하차경매 고령농·소농 한해 유예”

### 제주도·서울시, 내년 4월까지 유예 합의 규모화된 농가만 적용 후 비용 지원키로

제주도와 서울시가 가락시장의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적용 시기를 고령농과 소농에 대해서만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부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학중 에일양배추생산자협회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농·영세농에 한해 올해산 물량은 상차거래방식을 유지한다”는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안 부지사와 김 사장은 이날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문제를 협의한 결과 2018년산 출하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까지 일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양배추를 출하한 271농가 중

규모가 있는 일부 농가는 하차경매를 진행하지만 고령농가와 소농은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만 기존 방식대로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차경매 제외 대상 농가는 제주도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생산자협회가 협의해 적정한 규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하차경매에 소외되는 추가 물류비용에 대한 지원 여부 역시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호 사장은 “당장 제주산 양배추 출하되는 12월 15일부터 하차경매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차거래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산까지만 기존 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가락시장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안동우 제주도 정부부지사와 함께 16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산 양배추의 가락시장 하차경매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팥릿당 3000원, 박스는 6000원 그리고 제주 월동무는 1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맞춰 양배추 하차경매 지원단가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중 에일양배추생산자협회의장은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경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제주도와 서울시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성준기자 sjpjo@ihalla.com

## ‘꿈수 논란’ 동물테마파크 조건부 승인

### 16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지역주민·람사르습지 도시 관계자 협의 등 주문

말산업 위주 테마파크에서 야생동물을 관람하는 사파리 테마파크로 사업계획을 변경 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꿈수로 피했다는 논란에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 도시 관계자와 협의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제주식생 특성을 고려한 조경 식재 및 주변 오름 접근 용이토록 동선계획 검토 ▷용수공급계획 제시 ▷우수처리 시설 확보 ▷제주 토종동물 전시 공간 확보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확보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해당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곳자할 일대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51종 1200마리의 동물 관람시설과 호텔 120실, 동물병원, 사육사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이 당초 계획에서 대폭 수정됐다.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교육연구·축산체험시설은 전면 취소됐고 동물들을 사육·관람하는 공간인 휴양문화시설이 18만7308㎡에서 25만269㎡로 확장됐

다. 총 사업비도 당초 863억원에서 1674억원으로 감질 늘었다.

이와 관련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꿈수로 면제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말 산업 위주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비 조달 한계, 대표자 변경 등으로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 야생 사파리 조성을 골자로 6년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재차공에 들어갔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 등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됐다 재개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해갔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지 되팔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 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복제군으로부터 산 공유지 24만㎡를 행정당국이 공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 제3자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사업내용이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되면서 야생동물의 분포, 소음 등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체제에 의거 대면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서귀포시는 지난 14-17일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열린 '제3회 국제제문화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

## “문화축제 있는 서귀포시로 오세요”

### 서귀포시 14~17일 중국문화산업 박람회서 홍보

서귀포시는 지난 14-17일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열린 '제3회 국제제문화산업박람회'에 서귀포시관광협회와 참가자문화원이 함께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화로 세계를 연결하여 문화를 널리 알리자’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총 40개국 110개 도시와 기업들이 참가해 3000여종의 문화 전시품이 전시된 박람회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하루 평균 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이다.

서귀포시는 내년 1월 개최되는 제19회 겨울바다국제펜션수영대회를 비롯해 3월 제12회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4월 제37회제주유채꽃축제, 10월의 제25회 침실리축제를 중심으로 서귀포

시의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와 볼거리를 홍보했다. 또 제주의 야생에서 자란 인동꽃차, 국화차를 제주 삼다수로 우려낸 야생차 시음행사와 제주 감귤과 한라산 표고버섯을 활용한 음식 및 제주 전통 오메기떡 시식행사를 통해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제주 야생차 및 제주전통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서귀포시 청정 이미지를 알렸다.

한편 중국의 최남단 섬인 하이난성 남쪽에 위치한 인구 60만명의 산야시는 열대해안관광도시이자,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로 1999년 11월 서귀포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한 후 양 도시 간 행정·문화·민간 등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조흥준기자

## 해저병커가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 성산서 ‘빛의 병커’ 개관식

옛 국가기관 통신시설 병커가 미디어 아트 전시관 ‘빛의 병커’로 재탄생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빛의 병커’ 개관식이 지난 17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옛 해저광케이블 기지에서 진행됐다.

개관식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프랑스대사, 티모넷·컬처스페이스 대표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소개, 축하공연, 테이블프팅, 전시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의 깨끗한 자연환경 위에 체험과 감동,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바람과 파도처럼 덮을 때 진정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할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빛의 병커 체험이 제주도의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과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문화 예술의 섬 조성을 의지했다.

한편 ‘빛의 병커: 클리트’ 전시는 프랑스 이외의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내년 10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채해원기자



제주도는 지난 17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옛 해저광케이블 기지에서 ‘빛의 병커’ 개관식을 열었다. 채해원기자

파비앙 페 주한프랑스대사는 “미디어 아트 전시기지가 될 빛의 병커를 계기로 제주와 프랑스의 더 많은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빛의 병커 전시의 주관 사업자인 박진우(주)티모넷 대표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예술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잊혀진 삶의 장소를 되살리는 도시 재생과 문화 예술이 결합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빛의 병커: 클리트’ 전시는 프랑스 이외의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내년 10월 27일까지 이어진다. 채해원기자

**알림**

## “제주의 속살 거닐며 힐링하세요”

2018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4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8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짜든 삶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8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4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2018년 12월 1일 8시 - 16시
-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 ▶코스: 1100도로 - 한라산둘레길 - 노루오름 - 한대오름 - 검은들머름 - 태억밭 - 숲길 - 나인브릿지골프장 입구
- ▶집결지: 정부제주지방청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 ▶준비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 ▶신청기간: 2018년 11월 19일 - 11월 27일
-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 ▶참가비: 1만2천원 (여행보험·중식비 등 포함)
-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사)
- ▶문의: 2018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한라일보

2018년도 하반기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역경제제미나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주지역 에너지 및 수자원 정책방향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5:30~17:30

장소: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8층 탐라홀 (주소: 제주시 탐등로 60)

■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발표자	미래사회 트렌드에 따른 제주도 에너지 정책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연구팀 김경훈 팀장) 기후변화대응물-에너지 넥스 플랫폼 구축 및 추진전략 (한국수자원공사 융합연구팀 이윤래 박사)
사회자	김형길 교수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토론자	고봉운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진근 교수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현철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

■ 주최: 한국은행 제주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사업단  
■ 후원: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제주금융협회의

※ 문의처: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064-720-2503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 제8회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국제워크숍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일시 | 2018. 11. 27.(화) 10:00-17:30  
장소 | 오션스위트 제주호텔 2층 캐슬라울

기조강연: 한국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안병욱 전 환경부 차관

- ▶ 발표1 도시지역 기후변화 대응에 환경 NGO들의 역할, 책임 및 전략 - 쿠마란 무수사미
- ▶ 발표2 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병무
- ▶ 발표3 인도에서 기후변화와 도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이니셔티브 - 마노즈 쿨탈 데오리아
- ▶ 발표4 인도의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적 폐기물 관리 - 라즈버스 디카
- ▶ 발표5 한국소비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동 - 건미영
- ▶ 발표6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자원효율성과 순환경제 - 콜린트 싱

종합토론: 부영준, 조성화, 이영웅, 임동순, 최현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태양광 궁금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1:1 상담

“노는땅(1,500평 기준), 20년간 월 평균 5백만원 매출실현”

\*단, 설치용량에 따라 매출은 변경됨.

가정용 태양광 A/S 전문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9779-5760  
[www.nanoomenergy.com](http://www.nanoomenergy.com)

전액무료! 매월최대 316,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공센터

## 전기공사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2월 개강예정 - 6개월 과정

교육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배선공사, 약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설계등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카드신청후 수령까지 4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제원직업전문학교  
T: 747-5252  
[jejujwon.com](http://jejujwon.com)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지원으로 진행됩니다.